조금 동안 생긴 일

(요16:16~24)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9.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조금 동안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조금 동안 생긴 일.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19절 사이에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무려 7번, 혹시 8번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세어 보세요. 7~8번 반복 되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또 서로 말하되 조금 있

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이 무엇이냐’
아~ 이러니까 주님께서 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을 너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하시면서 대화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을 이렇게 접하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쯤이었을 거로 여겨집니다.
할머니께서 늘 아침식사가 되시면, 새벽기도를 갖다 오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 가족이 아침식사를 하게 될 때에 하셨던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그 가족이 출석하는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때마다 개인 기도시간이 되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들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나가시니까, 그 목사님의 기도소리를 다 듣게 되는데, 사람들이 새벽기도가 끝나면 대부분 기도하시다가 다 가고, 마지막까지 할머니가 남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큰 소리로 하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되시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저희 집안을 위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 동네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고, 혼자서 시내에 다른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교편생활을 하실 때의 동료 분들과,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셨던 조 향록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세운 초동교회를 나가셨고, 우리는 통합 측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동네 목사님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 교편을 그만 두시고 나오셔서, 캘린더를 제작하시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잘 되게 해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할머니가 얘기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 하면, 더 지체하지 마옵시고, 더 기다리지 마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저희 어머니가 이 씨이거든요, 이 집사님 가정에 경제적인 축복을 물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더 지체 마시고, 더 지체 마시고.

목사님이 왜 이 기도를 하시게 됐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가 굉장한 분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 회장을 몇 번을 하시고, 건축 위원회에 모두가 다 장로님이고 남자 분들인데, 오직 어머님 혼자서만 여자로 끼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0% 전폭적인 지지를 목사님을 향해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막강한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이었고 여전도회 회장이었지마는.
그러니까 어머니와 목사님이 대화 시간이 많은데, 사업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물어 보실 때마다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경제적인 여유로움에 대해 목말라 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된다'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된다'
날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목사님에게 그대로 갖다가 옮기신 겁니다.
'아유~ 우리 애 아빠가 조금 있으면 다 사업이 잘된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제가 목사님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더 지체 마시고, 더 기다리지 마시고, 이 집사님네 가정 위에 경제적인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거 뭐 하루 이틀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1년 2년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몇 년을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바람과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아버지의 사업은 완전히 망하시고, 완전히 망하신 뒤에야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우리 집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역시 해주십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 역시 엄청난 변화를 약속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조금 있으면 다 해결 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와 함께, 엄청난 불가사의한 변화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겁

니다.
기쁨이라는 게, 하루 이틀 기쁘다가 그다음 삼 사 일쯤 되면 무덤덤하다가, 또 오 육 일째 되면 그 기쁨이 또 없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기쁨이기에, 어떤 내용의 기쁨이기에, 뺏을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게다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과 함께 주어진 약속의 피크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해가 안 가는 약속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약속.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 요지부동의 기쁨과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된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발 하셨던 공수표 같은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뭐 동화나 만화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제자들에게 그런 요지부동의 기쁨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만화 같고 동화 같은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조금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조금 동안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붙잡히십니다, 조롱을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셔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온 몸이 채찍에 맞아서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50일 동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길게 잡아 50일 안에 다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맞지요.
저희 동네교회 목사님께서 몇 년 동안을,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신 걸 생각하면, 정말 짧은 기간 아닙니까?

이 불과 한 45~50일 만에 이 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도대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의 의미가 뭔데, 도대체 제자들에게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승천 하신 것은 주님의 사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주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의 사건이냐?
바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야 될 통로가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영도 하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 마른 땅을 건너 게 됩니다.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벽처럼 쌓이게 되고, 그 물이 쌓인 사이에 땅이 마른 곳을 발로 딛고 홍해 바다를 건너 게 되면서 출애굽, 구원의 모형인 출애굽 사건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을 빠져 나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라면, 제자들과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듯이, 이 세상을 빠져 나가는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출 세상 하는 거예요 주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들에 마음이 묶여 가지고 노예생활 하던 상태가 엄청난 죄악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매여서 노예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육체에 매여 가지고, 이 몸뚱이가 원하고 있는 것들에 매여서, 마음이 전전긍긍하며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면서 다 씻김을 받게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세상을 빠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빠져 나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매여서 노예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에 있는 가치, 궁극적인 가치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 있는 자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돈을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건강이 중요하다고 건강에 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벼슬자리, 승진 이런 것에 매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믿겠다는 것이, 부활한 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빠져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인간 사회가 정해 놓은 가치들에 마음이 묶여서, 그 가치들을 소원하고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상황인데, 왜 조금까지 기다려요?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 판을 뒤집어엎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근데 그 소원은 다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뭐 새삼스럽게 딴 소원들은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이거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주님만이 만들어 놓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세상을 빠져 나가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천국에 들어

가지는 않았지마는, 보좌와 이 세상을 빠져 나간 고 사이의 영역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쳐진 영역이라는 거예요, 고게.
고 영역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오직 하늘의 가치만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하늘만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단계라 이겁니다.
바로 거기서 마음이 머물 때 생기는 일들이, 주님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빠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빠져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 것도 바라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가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의 권세가 내 마음의 기쁨으로 담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기쁨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온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도 그 기쁨을 제어하거나 망가뜨리거나 훼손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마음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장사 되고 세상을 빠져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는 게 없습니다.
뭐 누구 약 올리시는 겁니까?
세상을 빠져 나와서 세상에 대해 바라는 게 없고, 바라는 거라는 건 오직 하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늘의 기쁨을 믿음 안에서 미리 맛보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준다는 얘기에요.
세상에 대해선 더 이상 무엇이든지 아무 것도 구하고 싶지가 않은데?
자, 이런 사람들이 구하게 되는 게 뭘까요? 세상을 빠져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빠져 나온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조금 동안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터널, 그 길을 통과해서 세상을 빠져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이 관심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살려두고 계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빠져 나왔고 내 마음을 채울 기쁨의 근원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구할 게 없습니다.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은, 지금 15장부터 세 번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까지 이거 네 번 반복 되는 거 아닙니까? 23절 24절에.
15장 7절과 15장 16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뭐냐,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무엇이든지'가, '조금 있으면'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면' 동안에 일어날 일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그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같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린 세상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대신에 출 세상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갔기 때문에 기쁨이 하늘이 됩니다.
기쁨이 하늘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따라 구하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세상을 빠져 나가면서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빠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좋고, 괜찮은 세상입니다.
가질만한 것이 많고, 추구 할 만 한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가치들을 다~ 코스트로 지불하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시기에 좋게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등 뒤로 돌려놓고, 이 세상을 빠져 나감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일체되는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것도 바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 알려 주시면서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불가사의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변화.
요동하지 않는 기쁨이 주어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이런 변화가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조금 동안에 생긴 일, 이 일을 나의 사건으로 생각해서, 날마다 세상을 빠져 나가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말로써 표현해 내는 것이지요.
오늘도,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조금 동안에 생긴 통로를 통하여 세상을 빠져 나가서, 요동하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시고, 아무 것도 나를 위해 구할 게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불가사의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있으면'이라는 주님의 단서에 붙은 약속들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해 주신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 줄 믿고, 이 조금 동안에 생긴 일을 나의 일로 삼아 요동하지 않는 기쁨을 얻게 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